

도·CU,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협력 강화

CU, 콩 100톤·고구마 100톤 추가 구입·상품개발·구내 매점 물품 다양화·휴식 공간 현대화 등 상생협력 다짐

전북도와 CU편의점 운영사인 (주)BGF리테일은 도내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5월 개최되는 전북 아시태평양마스터스대회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상록회 회장, 이건준 (주)BGF리테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을 다시 한번 다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상록회 매점 개점식 및 전북도-주)BGF리테일(CU) 상생협력 협약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상록회 회장, 이건준 (주)BGF리테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와 CU편의점 운영사인 (주)BGF리테일은 도내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BGF리테일은 지난 2022년 7월 21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고구마 400톤 상당의 원료 구매에 이어 이번에 콩 100톤과 고구마 100톤을 각각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상품개발을 위한 협업은 물론 2023년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해 전국 CU 편의점 17,000여 점포의 계산대 전자장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협력 확대 배경은 도청 직원들의 지원 상호협력인 전북도청 상

록회가 운영하는 청내 구내 매점 물건 유통을 담당할 업체로 CU가 선정된 뒤 지역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벌여온 결과물이다.

이건준 (주)BGF리테일 대표는 "작년 7월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 5종(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개발해 전국 CU 편의점에 출시한 바 있

는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농생명 수도 전북은 농산물 원료 생산에 최적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어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CU편의점의 BGF리테일과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 도내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협력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 농생명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도청 내 구내 매점의 수익금은 직원들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고 있으며, 상록회장은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접수 진행

건고추·노지감자 생강 3개 품목...내달 말일까지 신청

전북도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에서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상품목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등 3

가지다.

건고추 재배 농가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며, 노지감자, 생강 재배 농가는 전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목 중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을 추가 발굴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논 하계조사료 재배시 530만원/ha 지원

도,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대

전북도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전라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올해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조사료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기존 2만 4,000ha에서 2,000ha를 더한 2만 6,000ha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100만원/ha)과 조사료 생산장려금(6,000원/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79억원, 사일리지 제조비 428억원, 품질관리에 31억원 등 전년보다 66억원이 증액된 총 625억원을 투입해 조사료의 생산·유통·품질관리까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의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축순환을 활성화해 축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축순환이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와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논 하계조사료를 재배할 시 전라작물직불금(430만원/ha)에 추가적으로 논타작물생산장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봄철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예방수칙 준수 철저·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구토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 받기 등 당부

전북도는 최근 봄철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경우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평균 연간 21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평균 38명이 사망해 약 17.4%의 치명률을 보였다. 도내에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선의 예방법은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봄철 산나물 캐기, 등산,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4~11월 사이에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15일 이내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SFTS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귀농귀촌 정착 돕는 멘토 역량강화 교육 성료

전북도와 전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시·군 멘토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전북도 13개 시군에서 농촌생활분야, 영농기술분야, 농업경영분야 등 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60여명

의 멘토들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멘토의 역할 및 자제 △귀농·귀촌 갈등사례 및 대응방안 △농업농촌의 이해 △농지제도 및 농지활용 △농장설계 및 운영 교육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멘토 발굴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귀농·귀촌인을 2028년까지 11만명을 유입하고 농촌관광, 도농교류 확대 등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농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디지털문제해결센터 공모 선정

내달 개소 예정

전북도가 디지털문제해결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 5월 개소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는 디지털 보편권 및 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북 등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전북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는 도내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등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데이터·AI 관련 전문가 인력 등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민간기업의 고용 수요를 발굴해 디지털 분야 구직난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무주하늘풍력 공고 제2023-01호

주민참여형 무주하늘풍력 전기사업허가 신청 주민열람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4조2에 의거하여 무주하늘풍력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주민참여형 무주하늘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77 일원
다. 면 적 : 약 49,000 m²

2. 주요 내용

가. 발전의 종류 : 풍력발전
나. 발전설비용량 : 38.7MW(4.3MW 9기)
다. 사업개시 예정일 : 2025년 10월
라. 사업 운영기간 : 상업운전일로부터 20년

3.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가. 사업자 : 무주하늘풍력발전(주)
나. 사무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방로 498, 2층
다. 연락처 : 010-7507-7074 / yookiha69@gmail.com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4.10 ~ 2023. 4. 17
나. 제출방법 : 위 연락처로 유선연락 또는 이메일 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무주하늘풍력발전(주)